

2018년 11월 23일, 제주시 삼도1동 김순택 씨 댁, 이현정 조사.

김순택(남, 1944년생, 제주시 삼도1동)

- 제주시 영평 상동(가시나물) 출생하여, 제주4·3사건 때 고향을 떠나 제주시내로 피난와 삼도1동에서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옛날 제주도 영평 상동(가시나물)에 사는 김진국은 부자이긴 하나, 마음씨가 나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. 하루는 스님이 김진국이 잘 산다는 말을 듣고 권제를 받으러 집을 찾아 갔다가 쫓겨났다. 그뒤 김진국은 늦둥이를 낳았는데,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코도 눌린 채로 태어났다.

이 소식을 들은 스님은 김진국이 아픈 아이를 낳았으니 선행을 베풀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찾아갔으나 또 박대를 당했다. 스님은 늦둥이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김진국의 죄 때문이라 말하며, 광명화꽃을 구해다 늦둥이의 얼굴을 쓸어주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이 마을에는 방앗간을 맡아 어렵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, 어려운 형편임에도 찾아간 스님에게 자신이 힘들게 모아 놓은 곡식을 선뜻 시주하였다. 스님은 할머니의 선행에 감동하여, 광명화꽃과 관련된 노래를 가르쳐 준 뒤, 방아를 찧을 때 부르라고 했다. 김진국은 제주도 전역에 하인들을 풀어 광명화꽃을 찾으라 명령했지만, 하인들은 허탕만 치다가 김진국이 말미를 준 시일에서 하루를 남기고 방앗간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. 하인들은 할머니에게 광명화꽃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집 부엌 솥을 열어보면 광명화꽃이 있을 것이라 알려 주었다. 하인들이 솥을 열어 보니 거기에는 정말 하얀 광명화꽃이 피어 있었다. 이 꽃을 가지고 김진국의 집으로 가서 늦둥이의 얼굴을 쓸어 내리니, 아이의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 왔다. 김진국은 할머니를 은인으로 여겨, 극직히 대접하였고 그 뒤로 마을에서는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가 널리 퍼졌다.

[조사자] 가시나물하고 관련된 이야기 잇습니까?

[제보자] 이야기 있습니다. 그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긴데. 이 옛날에 그 김진국이라고 허는 대감이 있었는데 막 잘사는 사름이라. 겐디 사름이 막 몹쓸고 이 좀 뽕쟁이질을 해가지고. 뭐 누구한테 물 훈 적을 안 주는 거라. 동냥바치 와도 물 훈 적을 안 주고.

겐데 어느날 그 스님이 오니까. 스님한테 이 권제허라고. 권제란 건 권선이란

뜻입니다. 무신 불사가 있을 때 좀 보태달라고 갔는데. 한 푼도 안 주고 다 내쫓아 불었어.

“아, 이 사름 참 귀찮스렵다.”

헤가지고 왔는데. 그 후에이 김진국 잘 사는 하르방네이 집에 거 늦둥이가 태어났는데. 늦둥이가 막 장애인이라이. 눈도 졸바로 못 뜨꼭 코도 멜라지고 헨 애기를 낳는데. 아, 이거 사름이 아니라 이게. 겐데 그 후에 애기 낳덴 소문 나니까.

“아, 애기가 낳으니깐. 좀 나헌테 권제허겠지.”

헤가지고 그 스님이 가보니까. 아, 경헌 꼴인데도 불구하고 이 뽕쟁이 하르방이 이거 권제를 안허는 거야.

“당신네 이저 죄를 받아가지고 이거니까. 이걸 고칠려면 거 엇인 사름한테 보태 주고. 쫘 놉을 빌어도 쿨을 하영 주고 그래야 될 거고. 더 빠른 거는 광명화꽃이라고이. 광명화꽃을 구해다가 영 얼굴에 어름 쓸어 주며는 낫는다. 낫일 거다.”

허면서

“게, 알앙 허라.”

헨 떠나서 이제. 이제 그 마을에 우리 마을에 다른 할망칩이 갖는데. 할망칩이 권제 줌센 갖는데. 그 할망은 방애를 허는 사름. 방앗간 맡아가지고 허는데. 뭐 방앗간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, 막 불쌍허게 사는 할망인디. 방애 허당 나오면 영 빼멍 놓으단 이제 털어진 것들 잇잖ాయ게. 저 이 곡석을 모아가지고, 모아가지고, 모아가지고 삼 년 동안 모앙 나뉘. 놔뒀는디 거 오니까, 스님이 오니까. 아, 이걸로 권제헙센 헝 이제 다 퍼당 짓어.

거니까 그 할망이 얼마나 저 가난헛는지 양석이 없어가지고 뭇 먹을 수가 없어. 경헌 그 솟이 냉냉헤연. 솟이 뜻아 보질 못헌 할망이라. 경헌디 걸 주니까.

“아이고, 할머니 고맙수다. 이 방애질헛 때 노래를 불릅서, 이 노래를 불릅서. 그믄 큰 덕이 잇일 게우다.”

“이어도 방애, 이어도 방애, 이어도 방애, 광명화꽃이여.”

허멍 허라고 허니까. 게니까 할망이 경 불르면서 헛는데. 이 김진국하르방이 막 뽕든 하르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

‘아, 광명화꽃을 구해다 허면 뵈로구나.’

헛어. 그기 하님이 여남은 뻐주게, 여남은 뻐는데. 그 하님덜을 풀어서 한라산  
에 광명화꽃 구하러 한라산에 풀언. 반은 제주섬을 저 해변으로 영 뻐뻐 돌멍.

“소문 들영 광명화꽃을 구해 보라.”

했는데. 아, 열흘 동안 뎡겨 봐도 거 나오는가, 안 나오지. 게니까 이젠 지천  
종에도 아프고. 아, 이젠 하님덜이 한숨만 푹푹 쉬연.

“큰일났다. 이 하르방한테 안 가든 우리는 죽나네.”

헤가지고 경헨 인제 실 검 해서 영 졸았이니까. 어디서

“이어도 방에, 이어도 방에.”

허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라.

“아, 겐 거 이상하다. 무슨 노래가 이어도 방에, 이어도 방에 허는 게 잇인고?”

거 노래 부르는 데를 따라서 내려가니까. 아, 가까워가니까

“광명화꽃이여.”

그 소리를 들은 거라.

“이어도 방에, 이어도 방에, 광명화꽃이여.”

허멍 허니까

“아, 요기 가든 텔로구나.”

헤네 게난 그 하님덜이 가가지고 거, 광명화꽃 잇인디 골아도렌 허니까. 아이,  
그거는 곧는 거 아니엔. 아이, 저 우리 그 뻐든 하르방헌티 강 막 크게 저 사례  
허게 허크메 거 골아도렌 막 하도 보채노니까. 이 하루, 열흘이면 하루뻐이 안  
남앗 거든게. 거니까

“강 게든 우리 집이 가네 가운데 솟 영 들러 봅서.”

허니까 가운데, 집이 강 가운데 솟뚜껍 저 굴묵도 안헤난 냉냉헌 솟인데. 뚜껍  
을 영 올안 보니까. 아, 하얀 꽃이 피어 잇인 거라.

‘아, 이거 광명화로구나 이게!’

이걸 앓앙 강 하르방헌테 강 허난. 그 늦둥이 이제 애기헌테 이렇게 영 쓰니  
까. 눈이 버룽헤 가곡 코도 오뚱헤 가곡 사름이 돼여 가는 거라. 겐 사름이 뻐는  
디. 이젠 이 뻐든 대감이 아주 마음을 돌려서

“이거 이 할망을 우리집 저, 어무니로 모셔야 뻐겐.”



저 하님덜 시켜 가메허곡 좋은 옷허고 헤영 강 모성 오렌 헤연. 그 부잣집이  
강 살앗주게. 게니까 이젠 그것이 마을 사름덜한테

“하, 이거 좋은 일허면은 복을 받는 것이다.”

이런 이야기가 나왔지. 그리고 그 부잣집도 마음을 고쳐가지고 엇인 사름한테  
돕기도 허고 그런데 그것이.

“초년 고생은 과거 지사요. 말년 고생은 광명화로구나.”

허명 이제 그 노래가 또 나왔어. 게니까 초년에 고생하더라도 참 좋은 일을 허  
시면은 만년에는 복이 온다. 쌓여서, 복이란 것은 쌓여서 생기는 거지.

처음부터 허는 건 아니거든이. 뭐 날 때부터 착헌 애기도 잇곡, 부잣집 애기도  
있지만은 건 선대부터 쌓은 거고. 쌓여서 복이 된다는 것이지이.

[조사자] 어무니가 완전 이야기꾼이셨구나?

[제보자] 응, 어무니 아흔두 술에 헛는데. 어무니가 아주 이야기 많고, 광명화꽃은 광명을  
갓다주는 것이라고 헛어.

광명화도 우담바라화라고이, 부처님안테만 피는 꽃이라고 헛어.

나도 우담바라를 본 적이 있는데이. 우담바라 같애 우담바라. 부처님 덕이 이  
할망한테 광명을 주었다 허는 그런 뜻이 들어 잇는 거 같애.

- 핵심어: 광명화꽃(광명화꽃), 김진국, 스님, 권제, 방애(방아), 우담바라, 가시나물, 할망칩  
(할머니집), 하님(머슴), 부처님, 방앗간, 부자